

KISTEP 통계 브리프 2008-6호

WEF 네트워크 준비 지수 분석



WEF 네트워크 준비 지수 분석

KISTEP 정보분석팀

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인 WEF 네트워크 준비 지수(NRI)를 분석한 「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-2008」의 주요 내용을 요약·정리함

1. 개 요

- 네트워크 준비 지수(Network Readiness Index)는 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 분야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
 - 2002년 이후 WEF와 INSEAD*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보고
 - 2007년에는 127개국을 비교 분석
 - * INSEAD(인시아드)는 1959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경영대학원
- 네트워크 준비 지수를 환경, 준비, 활용 3 부문으로 나누어 측정
 - 환경 부문은 정보통신 분야에 친화적이고 보급 가능한 환경인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장 환경, 정치·규제 환경, 인프라 환경 3부문으로 측정
 -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밑바탕을 측정하는 준비 부문과 정보통신의 실제적인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활용 부문은 각각 개인, 기업, 정부 3부문으로 나누어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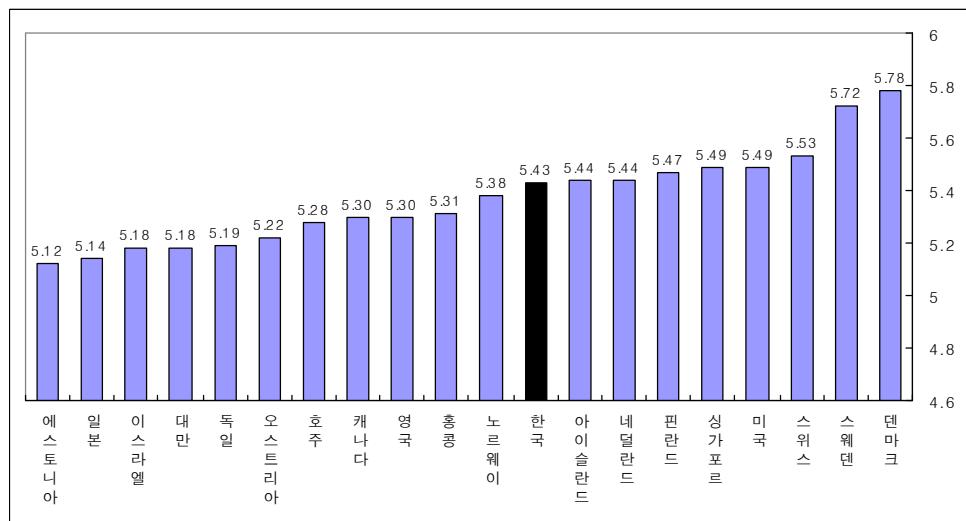
2. 주요 내용

□ 2007-2008 네트워크 준비 지수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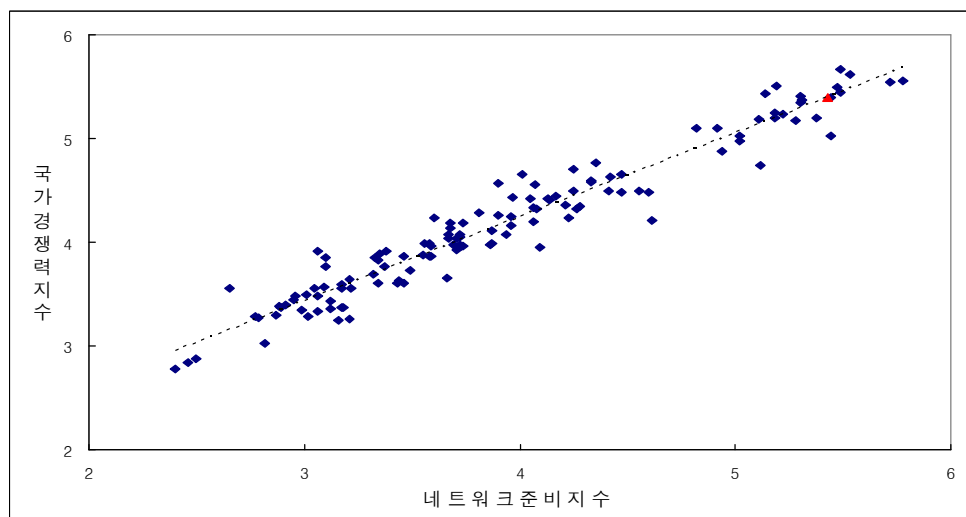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10계단 상승한 9위를 차지함
 - 덴마크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스웨덴, 스위스, 미국 등이 뒤따름
 - Nordic 국가(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)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높은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됨

- WEF가 측정한 국가 경쟁력 지수(GCI 2007-2008)와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
 - 두 지수 간 상관계수는 약 0.97임
 - 인과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국가 경쟁력과 네트워크의 준비 정도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
<그림 1> 네트워크 준비 지수 (2007-2008)



<그림 2> 네트워크준비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의 산점도



□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

- 우리나라 지수 순위는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순위는 상승 추세
 - 활용 부문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준비 부문은 2005년 이후 10위권에 진입
 - 반면 환경부문은 20위권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함

<표 1>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순위 변화 (2002-2007)

	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
네트워크 준비지수		14	20	24	14	19	9
부 문 지 수	환경	26	20	36	25	23	17
	준비	12	19	25	8	9	3
	활용	8	17	7	7	11	4

□ 부문별 세부 분석

-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역량 중 강점인 분야는 정부 분야임
 - 정책적으로 정보통신 분야를 우선시하고 정부 내에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그 유용성을 높이고 있음
- 환경 부문 중 정치·규제 분야와 인프라 분야는 약점 분야임
 - 법적 제도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교육비의 지출이 낮아 정보통신 기술의 역량의 저해 요소가 됨

<표 2> 우리나라의 세부 부문 지수 순위 변화 (2002-2007)

	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
환경	부문	26	20	36	25	23	17
세부 부문 지수	시장	19	19	39	15	27	7
	정치	33	25	41	28	26	20
	규제						
	인프라	25	9	31	24	20	17
준비	부문	12	19	25	8	9	3
세부 부문 지수	개인	6	21	40	19	23	7
	기업	18	23	24	21	21	11
	정부	15	9	11	3	3	3
활용	부문	8	17	7	7	11	4
세부 부문 지수	개인	1	15	2	5	11	15
	기업	12	18	22	14	11	7
	정부	14	10	19	6	12	3

<표 3> 정부의 준비와 활용 분야의 강점 세부 지표

세부 지표		순위	상위 5개국 대비 수준 ¹⁾
준비 부문	정보통신 분야의 우선화*	6	102.80%
	첨단기술을 정부에서 조달하는 정도*	2	108.00%
	미래에 대한 정부 비전에서 정보통신의 중요도*	7	106.70%
	E-정부 준비 지수	6	100.10%
활용 부문	정부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기술 활용정도*	3	103.00%
	정부 웹사이트의 유용성 지수*	2	127.90%

*는 설문 지표임

<표 4> 정치·규제와 인프라 분야 약점 세부 지표

세부 지표		순위	상위 5개국 대비 수준
정치·규제	법규 제정의 효율성*	32	80.8%
	사법의 독립성*	35	86.8%
	계약 체결 과정 수	45	83.8%
인프라	보안된 서버 비율	51	23.8%
	GNI 대비 사용된 교육비	75	67.0%

*는 설문 지표임

1) 네트워크 준비 지수 전체 1~5위국인 덴마크, 스웨덴, 스위스, 미국, 싱가포르의 각 세부 지표의 표준화 값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표준화 값의 비

3.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의 역량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
 -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준비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며 환경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
 - 특히 정부 부문이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정부의 주도로 정보통신 기술의 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
-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
 -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
- 정보통신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축적된 역량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정치적·법률적인 규제의 효율화와 정보 통신 부문 보안 의식 강화,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 투자의 제고가 필요함

* 자료원 : WEF,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-2008

* 자료관련 문의 : 정보분석팀 (02-589-2949, 2892)